



한국 김진수(왼쪽)가 10일(한국시간)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U-17 월드컵 축구 8강전에서 나이지리아의 오모 오자부와 볼을 다투고 있다.

Sports

# 세계 장애인탁구축제 광주서 팡파르

10개국 150여명 참가 … 염주체육관서 오늘부터 5일간

광주에서 세계 장애인들의 탁구축제가 막을 올린다.

2009 광주 국제 장애인 탁구선수권대회가 11일부터 염주체육관에서 5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국제탁구연맹(ITTF)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일본·대만·홍콩·말레이시아 등 세계 10개국에서 1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국가의 명예를 걸고 최고의 기량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는 남녀 휠체어와 스탠딩 1~10

체급으로, 오픈전·개인전·단체전 3개 세부 종목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 일정은 11일 오전 숙소 배정과 오후 연습훈련으로 시작된다. 본격적인 경기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대회는 14일 오후 환송만찬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대회 시상은 남녀 휠체어와 남녀 스탠딩 그리고 감독 등 5명에게 각각 MVP가 주어 진다. 또 오픈·개인·단체전에서 각각 1·2·3위까지 시상을 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9월 베이징올림픽 때 광주 개최가 확정된 2010 세계장애인 탁구선수권대회의 프레데레이션으로 지난 2월 국제 탁구연맹 실사단이 광주를 방문한 후 최종 결정됐다. 2010 세계장애인 탁구선수권대회는 세계 45개국에서 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단일 종목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며, 올림픽에 버금가는 대회이다.

광주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 참가 선수 접수 및 대회 준비에 착수했으며 광주에서 최초로 열리는 장애인 국제대회인 만큼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경쟁력 갖춘 청소년축구 ‘미래 밝다’

U-17 월드컵, 나이지리아에 1-3 석패 … 4강 좌절

아쉽지만 한국 축구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U-17) 대표팀은 10일 오전(한국시간) 나이지리아 칼라바르의 UJ 에수네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8강 경기에서 2007년 한국 대회 챔피언인 아프리카의 강호 나이지리아에 1-3으로 지면서 아쉽게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한국 청소년대표팀의 활약은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F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한국은 남승우(부경고)와 손흥민(동북고), 이종호(광양제철고)의 레이트 골을 앞세워 우루파이를 3-1로 완파했다. 남미의 복병이라는 우루파이

를 완벽하게 제압한 판이었다.

알제리와 경기에서도 2-0 완승을 거두며 공수 양면에서 잘 짜여진 조직력을 과시한 청소년대표팀은 멕시코와 16강 전에서는 0-1로 뒤져 패색이 짙던 후반 추가 시간 김동진이 극적인 동점골을 뽑아내면서 승부차기 끝에 5-3으로 이기는 명승부를 펼쳤다.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청소년대표팀이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정신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돼있음을 보여줬다.

이종호와 손흥민이라는 걸출한 공격수가 대회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큰 소득이다.

176cm, 77kg으로 탄탄한 체격, 과감한 돌파력과 슈팅력을 고루 갖춰 ‘광양의 뿐’으로 불리는 이종호는 외국 선수들과 몸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슈팅으로 상대팀의 간답을 서늘하게 했다.

경기 흐름을 읽는 센스와 개인기가 돋보인 손흥민은 한국 선수 중 가장 많은 골(3골)을 기록했다. 특히 나이지리아와 경기에서 전반 40분 상대 미드필더 진영 중앙에서 공을 놀다 오른발로 강하게 차 골망을 출렁인 장면은 FIFA에 의해 ‘오늘의 골’로 선정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 때문에 이종호와 손흥민이 포진한 공격선수는 어느 팀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부터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전임지도자로 활동해 온 이광종 감독의 지도력도 눈길을 끈다. 이 감독이 각급 연령대별 코치와 감독직을 거치면서 체득한 지식은 청소년대표팀이 기술적인 면은 물론 정신적인 면에서도 최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호와 손흥민이라는 걸출한 공격수가 대회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큰 소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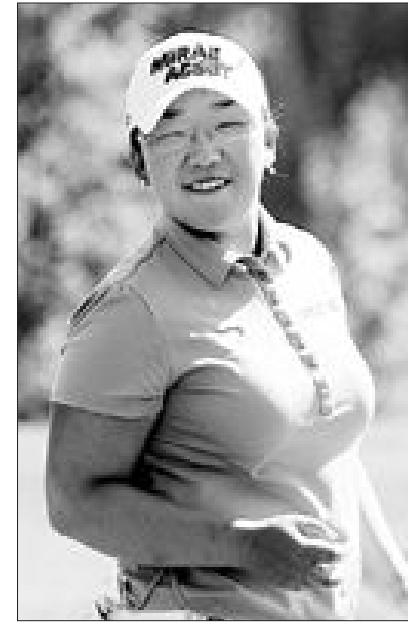
176cm, 77kg으로 탄탄한 체격, 과감한 돌파력과 슈팅력을 고루 갖춰 ‘광양의 뿐’으로 불리는 이종호는 외국 선수들과 몸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슈팅으로 상대팀의 간답을 서늘하게 했다.

경기 흐름을 읽는 센스와 개인기가 돋보인 손흥민은 한국 선수 중 가장 많은 골(3골)을 기록했다. 특히 나이지리아와 경기에서 전반 40분 상대 미드필더 진영 중앙에서 공을 놀다 오른발로 강하게 차 골망을 출렁인 장면은 FIFA에 의해 ‘오늘의 골’로 선정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 때문에 이종호와 손흥민이 포진한 공격선수는 어느 팀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부터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전임지도자로 활동해 온 이광종 감독의 지도력도 눈길을 끈다. 이 감독이 각급 연령대별 코치와 감독직을 거치면서 체득한 지식은 청소년대표팀이 기술적인 면은 물론 정신적인 면에서도 최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신인왕을 확정지은 신지애는 12

일(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과달라하라 골프장(파72·6천 644야드)에서 나흘간 열리는 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10만달러)에



신지애

‘신인왕’ 신지애  
골프여제 안방서  
지존 등극 노린다

LPGA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참가



오초아

## 허정무호, 덴마크·세르비아와 평가전 출국

축구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유럽 텁정무호, 허정무호, 이종호, 김진수

대표팀은 10일 오전(한국시간) 나이지리아와 경기에서 1-3으로 패배했다.

허정무호는 10일 낮

인천공항에서 덴마크로 떠났다.

대표팀은 15일 오전 4시(이하 한국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덴마크 대표팀과 친선경기를 갖고 나서 18일 오후 11시30분 영

국 런던에서 세르비아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수비수 김동진(제니트)이 소속팀 요청으로 대표팀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번 원정에 참가하는 허정무호는 모두 24명.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유럽과 6명과 이영표(알힐란)는 경유지인 영국 런던 또는 덴마크 현지에서 바로 대표팀에 합류한다.

## 2022월드컵 축구 유치위 내년 예산 90억원 확정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위원회(위원장 한승우)가 내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월드컵 유치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총회를 열어 국비 30억원과 유치 후원금 20억원, 천조금 40억원 등 내년 예산 90억원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립체육원

&lt;p